

심리적 거리가 범죄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안재경[†]

한남대학교

최이문[‡]

경찰대학

본 연구는 Trope와 Liberman(2010)의 심리적 거리 개념을 활용해 범죄관련 의사결정과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공간적 거리의 시나리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가까운 공간적 거리보다는 먼 공간적 거리 조건에서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양이 충분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며,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경향이 높았다. 이를 통해, 공간적 거리 조건의 시나리오에서 범죄관련 정보의 제시방식에 따른 개인이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한편 심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적 정보들은 높은 수준의 위험인식을, 심리적으로 먼 공간적 정보들은 낮은 수준의 위험인식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부분의 범죄피해를 더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 범죄두려움과 위험인식 연구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빈번히 고려되었던 성별이라는 인구통계학적 정보보다 범죄사건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근접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범죄현상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거리의 수준이 범죄라는 현상에 대한 위험인식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주요어 : 심리적 거리, 해석수준이론, 생활안전실태조사, 위험인식, 의사결정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23년도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임.

† 제 1저자, 한남대학교 강사, 범죄학 박사

‡ 교신저자: 최이문, 경찰대학 교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E-mail: yimoon@police.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2023, The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해석수준이론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주로 소비자학이나 경제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범죄학 분야에서는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해석수준이론은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와 해석수준(mental construal)의 두 가지의 심적기제(mechanism)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심리적 거리는 자신(self), 여기(here and now), 현재(present)에 해당하는 한 개인의 기준점(reference point)을 중심으로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 구성된다(Chadde, 2015). 심리적 거리는 현재와 미래로 구분되는 시간적 거리, 가깝거나 먼 것으로 구분되는 공간적 거리,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거리, 발생가능성에 따른 발생확률적 거리로 구성된다. 이때 심리적 거리에 따라 해석수준에 차이가 나는데, 시기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 사건일수록(시간적 거리), 근접한 장소에서 발생할수록(공간적 거리), 나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발생할수록(사회적 거리), 더 일어날 법한 사건일수록(발생 확률적 거리) 사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다(Trope & Liberman, 2010). 심리적 거리를 평가하는 정신적 해석(mental construal)의 절차로는 해석수준이 있다.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추상적이고 도식적인 원인 중심의 상위 수준해석(high-level construal)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구체적이고 상황적인 결과 중심의 하위 수준 해석(low-level construal)이 발생한다.

심리적 거리가 멀면 사건의 영향에 대한 예상이 어렵고, 따라서 세부적인 정보의 처리나 대응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사건의 결과와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적 거리에 따른 해석의 수준은 서로 다른 표상과 속성을 강조하여 같은 자극과 현상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평가, 상이한 판단, 그리고 의사결정을 이끈다(McCrea et al., 2012). 해석의 수준에 따른 개인의 특정 사건에 대한 예측, 상황에 대한 평가, 그로 인한 행동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Trope & Liberman, 2010). 해석수준이론을 주장한 Trope 외(2007)에 따르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대상을 낮은 수준의 상세하고 맥락화된 특징으로 해석하는 반면, 멀리 있는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은 높은 수준의 추상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해석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의 수준에 따라 해석의 수준이 달라지며, 해석수준의 변화는 행동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 차이로 이어진다.

심리적 거리가 범죄두려움 연구에 적합한 이유는 범죄두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혹은 ‘먼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한 정신적 해석을 다루기 때문이다. 범죄피해를 생애 단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느끼는 현상은 범죄가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등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동일한 범죄 사건이더라도 심리적 거리는 다르게 감지된다. 예컨대 개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는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으로써 해석되지만 해당 사건을 미디어에서 접하게 된다면 사회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범죄는 잠재적으로 실재하는 일상의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며,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 범죄는 추상적인, 일반적인 사회문제들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Chadde, 2015). 해석수준이론은 범

죄에 대한 주관적인 심리적 거리감과 그에 따른 해석을 통해 범죄의 두려움이 결정되는데 대한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기에, 범죄두려움 연구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위험인식으로서의 범죄두려움 개념

해석수준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해석에 따라 형성된다. 이같은 판단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선 위험인식의 개념이 필요하며, 특정 위험현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인식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범죄현상을 표상한다. 범죄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한다면 범죄위험성에 대한 심리적인 근접성과 현재성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요인들은 항상 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고 때로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범죄두려움 연구에 있어 범죄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 즉 위험인식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거주지역의 범죄율, 범죄피해경험(Ferraro, 1995; Hale, 1996), 범죄정보에 대한 노출은 범죄두려움과 항상 관련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감소된 수준의 범죄두려움이 보고되거나(Chadee, 2015) 무관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한다(Banks, 2005; Callanan, 2012; Chadee & Ditton, 2005). 즉, 개인의 주관적 맥락과 관점에 따라 범죄현상이 다르게 인식되고, 해석되며, 판단될 수 있다.

범죄현상이 묘사되고 이해되는 방식의 중요성은 범죄학 이론의 신호범죄이론(signal crimes

perspective; Innes, 2014)에서도 강조되었다. 신호범죄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범죄 묘사(표현), 내용, 영향에 따라 개인이 갖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해석이 변화될 수 있다. 즉, 특정 유형의 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도 더욱 위협적이고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신호범죄이론은 개인이 범죄신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개인의 기준점(i.e. 즉, 해석자의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에 따른 범죄신호의 관계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석수준이론은 개인의 심리적 거리와 그 해석이라는 추가적인 요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보다 주관적 해석의 방식을 제공하여, 신호범죄이론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 범죄학 문헌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범죄두려움을 포착하기 위해 제시한 설명을 살펴보면 위험인식과 해석수준이론의 유용성을 더욱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언론의 범죄보도와 범죄두려움에 대한 기존 범죄학 문헌의 설명은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범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에 노출될수록 위험에 대한 지각과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Gunter & Wakshlag, 1986; Liska & Baccaglini, 1990), 둘째, 범죄에 대한 미디어 메시지가 실제 경험을 유사하게 묘사할 때 더 강해진다는 주장(Gerbner et al., 1980), 그리고 범죄피해자와 동일시 할수록 위험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해진다는 주장(Gerbner et al., 1978)이다. 이 주장들이 근거하는 것은 범죄정보 자체가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근접성, 노출의 정도, 구체성이 증가할수록 범죄라는 위험현상에 대한 인식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근접성, 그리고 노출 정도와 별개로 개인의 해석수준에 따라 범죄정보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정보가 동일한 수준의 위협인식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석수준이론의 표현을 빌리면, 위협인식은 사건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그에 대한 ‘해석’에 따라 구성된다. 911 테러사건에 해석수준이론을 적용한 Chadee (2015)의 비유는 보다 명료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911 테러사건의 ‘원인’에 대한 추론을 하는 경우 사건발생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를 생각하는 상위수준의 해석이 이루어져 정치사회적 문제로서 해석된다. 반면 ‘결과’에 대한 추론이 이루어지는 경우 테러로 인한 끔찍한 신체적 상해, 감정적 트라우마, 죽음이 생각되는 하위수준의 해석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테러사건의 피해자들인 2,966명에 대한 개별적인 범죄사건으로 해석된다. 결국 해당 사건이 개인에게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지 여부는 사건이 얼마나 ‘가깝고’, ‘발생가능’하게 인식되는지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심리적 거리와 위협인식

종합하면, 범죄학 분야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범죄두려움’을 해석수준이론의 관점에 따라 위협인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범죄두려움은 추상적이고 심리적인 상상 속의 ‘범죄’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위협인식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범죄에 대한 심리적 근접성에 대한 감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 범죄라는 위협 현상에 대한 인지적 평가, 위협현상에 대한 판단

(judgment)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위협인식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¹⁾ 범죄두려움과 달리 위협인식은 범죄에 대한 확률적인 판단이 심리적으로 매우 근접하게 느껴지고,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을수록,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논의(Bar-Anan et al., 2006; Todorov et al., 2007; Trope et al., 2007; Wakslak & Trope, 2009)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학 문헌에서 ‘위험’이란 불확실하며 부정적인 현상의 영향과 그것이 일어날 발생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다. 위험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얼마나 발생가능한지(likelihood),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consequences), 해당 현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controllability) 등이며, 개인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Killias, 1990; Gabriel & Greve, 2003; Farrall et al., 2009; Jackson, 2006, 2011). 해석수준이론의 용어를 빌리면 미래의 불확실한 범죄사건이 실제로, 시간적으로 조만간, 자신과 주변인에게,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될수록, 위협인식이 증가할 것이며 따라서 범죄두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해석수준이론의 시간적 거리개념을 위협인식에 확장한 Chandran과 Menon(2004)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가까운 부정적 상황이 먼 상

1) 위협인식으로서 범죄두려움 개념의 활용, 타당화는 안재경(2023)에 의해 제안된 바 있으며 선행연구는 범죄두려움이 직관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의 작업이므로 인식된 위협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임을 보고했다(Slovic et al., 2004). 본 연구 또한 해당 논문의 논의에 따르기로 하였다. 분석결과와 논의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두려움을 ‘위협인식’으로 표기했다.

황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위험인식으로 인해 형성되는 범죄두려움은 범죄의 발생가능성과 피해심각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기 때문에(Jackson, 2011), 개인이 얼마나 생생하고, 쉽게, 범죄의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을 정서적 이미지로서 상상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사건에 특히 취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범죄를 심각한 결과와 연관시키고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여길 것이다. 즉,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강도, 폭력범죄, 때로는 성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Jackson, 2011).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식될수록, 인식된 위협은 더 높아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수준도 증가한다(Warr, 1987). 그러므로 동일한 범죄현상이더라도 개개인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범죄라는 위험현상을 인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개인의 심리적 거리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범죄정보에 대한 해석: 심리적 거리와 추론편향(attribution bias)

심리적 거리에 따른 주관적 해석의 차이는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사건 해석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 맥락이 배제된 본질적 차원에서 사건을 고려할 것이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부수적이며 세세한 정보들에 초점을 맞춘다(이가영 외, 2018). 이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 일수록 사건이나 행위의 근본적인 요소들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므로, 행위자의 기질적인

요인에 귀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판단을 하게 된다(Nussbaum et al., 2003; Gamliel et al., 2017).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먼 심리적 거리에 대한 해석은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 행위의 주체에 대해 더욱 가혹한 판단을 이끄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어왔다(Gamliel et al., 2017; 정혜승 외, 2011; Agerström & Björklund, 2009).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판단에 있어 심리적 거리 중 시간적 거리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가영 외, 2018)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심리적 거리에 따라 주관적 해석이 달라지는 현상은 행동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귀인편향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귀인편향이란 행동의 원인에 대해 이유를 만들 때 사람들이 표상하는 편향을 나타내며, 궁극적 귀인편향, 근본적 귀인편향, 행동-관찰자 편향 등 다양한 종류의 귀인편향이 존재한다. 이 중 행동에 대한 판단 시 상황 및 환경을 과소평가하고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을 강조하는 경향을 근본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고 한다(Jones & Harris, 1967). 해석수준 이론 관점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행위자의 기질적 요인에 귀인한다. 박재진(2012)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감이 멀수록 근본귀인 오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해석수준이론에 기반한 귀인현상은 주로 도덕적 사건이나 가상의 상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시된 것으로 행동을 수행하는 자, 즉 행위자에 대한 귀인현상에 한정되어있다. 그러므로 범죄행위를 하는 자(가해자)와 그 영향을 받는 자(피해자)가 존재하고,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인물에 대한 귀인현상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어 오지 않았다.²⁾ 따라서, 심리적 거리에 따른 귀

인현상이 행동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근본귀인오류를 범하는 현상을 심리적 거리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범죄사건에 대한 판단 또한 마찬가지로 정보들을 종합하여 타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의사결정과정²⁾이므로 심리적 거리의 논리가 적용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먼 심리적 거리로 인한 추상적 차원의 해석일 경우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세부사항들에 의존해 판단하는 경향이 적다(Houwelingen et al., 2020). 따라서 보다 피상적인 차원의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면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 의한 해석은 자세하고 세밀한 증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된다. 가까운 심리적 거리 조건에서 충분한 정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범죄사건 가해자에 대한 판단은 확신할 수 없거나, 유보되거나,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법률전문가들조차 개인의 태도나 신념 같은 심리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고, 그로 인해 범죄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Berthet, 2022). 다만 심리적 거리에 따른 선행연구들에 따라 먼 심리적 거리(원인 중심)는 가까운 심리적 거리(결과 중심)에 비해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의 기질로 귀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먼 심리적 거리는 보다 이성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되어있으며, 이와 같은 분석적인 해석의 방식은 의식적 노력을 요구하는 논리적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Choi, 2013),

2) 타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귀인과 더불어 처벌과도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Genshow et al., 2017; 안재경 외., 2021).

상대적으로 비용보적인 처벌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먼 심리적 거리는 사용 가능한 정보에서 요점(gist)를 추출하는 도식적이고 비맥락적인 해석으로 몇 가지 상위 핵심적 정보만 도출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Trope et al., 2007). 따라서, 판단 시 요구되는 증거의 양이 가까운 심리적 거리 조건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 의한 판단은 보다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고, 풍부한 세부사항과 부수적이며 주변적인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Trope et al., 2007).³⁾ 따라서 판단 시 요구되는 증거의 양은 먼 심리적 거리에 비해 많을 것이며, 응보적 처벌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⁴⁾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죄현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된 정보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3) 예컨대 두 아이가 캐치볼을 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한 경우에서 하위수준의 해석에 필요한 정보들은 아동의 나이, 공의 색상, 그리고 외부 온도와 같은 세부 사항들이지만 상위수준의 관점에서 ‘즐거운 활동을 하는 상황’으로 해석한다. 상위 해석의 방식은 사건의 고유한 세부 특징들보다 사건의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석한다(Trope et al., 2007).

4) 상위해석수준일수록 비용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도 있으나, 이와 반대로 응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혼재된 결과가 존재하여 항상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는 않다 (Mårtensson, 2017). 이에 본 연구는 시나리오를 활용해 해석수준에 의거한 도덕적 판단을 다룬 선행연구(Gong & Medin, 2012)를 참고하여 상위 해석에 의한 판단은 비용보적인 판단을, 하위수준에 의한 판단은 응보적 판단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다.

인 거리감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느끼는 감정과 인식의 수준도 차이날 수 있다. 이를 위협인식에 대입하면, 범죄라는 위험현상이라는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마다 심리적 거리감이 달라질 것이며, 위협인식 또한 차별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범죄의 원인(i.e. ‘왜’의 조건)과 관련된 해석은 먼 심리적 거리의 해석과, 범죄의 결과(i.e. ‘어떻게’의 조건)와 관련된 해석은 가까운 심리적 거리의 해석과 연관되어있다(Vallacher & Wegner, 1989; Fujita et al., 2006). 그러므로, 먼 심리적 거리의 조건에서 대상의 근본적인 속성을 보다 중요시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가까운 심리적 거리의 조건에서는 대상의 상황적 속성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Trope & Liberman, 2010). 이에 따르면, 범죄정보에 대한 개인의 해석은 범죄사건의 원인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에 범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달라지는 범죄원인에 대한 판단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적 거리의 유형은 공간적, 시간적, 발생확률적 거리로 조작화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귀인 현상, 처벌판단, 그리고 위협인식의 수준을 측

정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론적 구조는 표 1과 같다.

- ① 먼 심리적 거리는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의 기질로, 가까운 심리적 거리는 상황으로의 귀인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 ② 먼 심리적 거리는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을 것이다.
- ③ 먼 심리적 거리는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 비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양이 적을 것이다.
- ④ 먼 심리적 거리는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 비해 피고인 혐의 판단에 대한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 ⑤ 먼 심리적 거리는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 비해 모든 범죄유형에서 위협인식이 낮을 것이다.

심리적 거리에 따른 위협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총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제공하였으며 사용된 설문지는 시나리오 접근을 통해 일반

표 1. 연구의 이론적 구조

심리적 거리	해석의 틀	평가방식	원인 귀인	의사결정	응보	필요한 정보의 양	판단 가능성
먼	원인(why, cause)	추상적, 구조적, 탈맥락적, 포괄적	개인, 기질	이성적 (연역적)	비응보적	적음	낮음
가까움	방식(how), 결과(consequence)	비구조적, 맥락적, 부차적, 종속적	환경, 상황	직관적 (귀납적)	응보적	많음	높음

인과 범조인의 양형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제작된 선행연구(박성훈, 강태경, 2016) 시나리오를 활용해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유형별 시나리오의 사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활용할 자료는 설문조사자료이다. 연구대상자는 전국범죄피해조사의 표본 설계를 참고로 하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설문의 수행은 온라인 조사 전문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수행되었다. 위험인식의 측정 문항과 심리적 거리 수준에 따라 총 두 가지 버전의 설문지가 제작되었고 참여자에게 무선할당하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온라인 조사 업체 패널 가입자 전체이다. 설문대상자의 기술통계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심리적 거리(i.e. 먼 심리적 거리와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이에, 패널 가입자가 무작위적으로 두 조건 중 하나에 할당되도록 설정하는 집단 간 설계로 이루어졌다. 표집(표본)이 응답한 결과 중 불성실한 응답(e.g. 끝까지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응답자, 중복된 응답이 많은 응답자, 불성실한 응답자 등)을 제외하고, 유효 응답 221명에 대한 결과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거리 조작유형에 따라 각 조건별 116명, 105명에 대한 응답치를 얻었다.

사용한 조사방법은 스마트폰 온라인 조사

(Smartphone Online Survey, SOS)로 기존에 존재하는 스마트폰웹조사(Smartphone Web Survey, SWS)에서 비롯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온라인 조사(Smartphone Online Survey, SOS)란 인구학적인 데이터(e.g. 성별, 연령, 지역)에 기반한 패널에서 추출한 표집을 온라인 조사 중 하나인 스마트폰을 사용해 설문조사 결과를 얻는 조사방법이다. 연구시작 전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승인(승인번호: P01-202208-01-024, 연구수행기간: 2022년 8월 16일~2022년 10월 31일)을 받았으며,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구성하고 실시했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자녀유무, 교육수준, 직업, 장애여부, 직업,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가구소득, 평생동안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⁵⁾,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범죄피해를 당한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답변문항은 범행 발생의 원인(또는 결과), 발생원인 추론(개인적: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요인 때문이다; 외부적: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⁶⁾, 법적 비난가

5) 생활안전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해외의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한 피해 경험에 대한 응답을 요청받는다. 그러나 범죄피해의 영향은 12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미칠 수 있다는 논의에 따라(Jackson, 2007), 본 연구에선 평생동안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로 변경하여 기본조사항목으로 질문하였다.

6) 공간적거리 시나리오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요인(무단횡단, 전방을 살피지 않음), 외부적 요인(당시 도로의 구조, 어두운 상황)을, 시간적거리 시나리오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요인(늦

표 2. 설문대상자 기술통계 (단위: 명, %)

	구분	비율
성별	남성	156 (70.6%)
	여성	65 (29.4%)
연령대	20대	16 (7.2%)
	30대	33 (14.9%)
	40대	48 (21.7%)
	50대	70 (31.7%)
	60대 이상	54 (24.5%)
자녀유무	있음	168 (92.8%)
	없음	13 (7.2%)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미만	2 (0.9%)
	초등학교 졸업	6 (2.7%)
	중학교 졸업	85 (38.5%)
	고등학교 졸업	112 (50.7%)
	대학교 졸업	16 (7.2%)
직업유무	있음	181 (81.9%)
	없음	40 (18.1%)
가족구성원	혼자 살고있음(1인가구)	37 (16.7%)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180 (81.4%)
	연인 또는 사귀는 사람	3 (1.4%)
	친구 등 아는 사람	1 (0.5%)
총 가구소득	소득 없음	16 (7.2%)
	100만 원 미만	8 (3.6%)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18 (8.1%)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47 (21.3%)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47 (21.3%)
	4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	36 (16.3%)
	500만 원 이상 ~ 600만 원 미만	16 (7.2%)
600만 원 이상	33 (14.9%)	
범죄피해여부	있음	115 (52.0%)
	없음	106 (48.0%)
피해범죄유형	폭행, 구타 등	12 (10.5%)
	사기	92 (80.0%)
	성폭행, 성추행 등	6 (5.2%)
	기타	5 (4.3%)
전체		221 (100.0%)

게까지 술을 마심 등), 외부적 요인(직장 내 상하관계로 인해 음주할 수밖에 없었음 등), 발생 확률적 시나리오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요인(아무 의심없이 속음), 외부적 요인(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회상황)와 같이 각 시나리오별 예시들을 제시했다.

능성(가해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 혐의입증을 위한 정보의 충분함 정도(위의 범죄사건에서 제시한 정보의 양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혐의

판단에 대한 가능성 정도(정보의 양이 부족 (또는 충분)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형에 대한 판단, 위험인식(발생가능성: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피해가 향후 12개월 내 귀하에게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심각성: 위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양형판단을 위한 문항은 각 심리적 거리 수준 별로 별도의 문항을 사용했다. 먼 공간적 거리를 미국으로 설정한 후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미국의 법정형은 최고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최소 18개월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러한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가까운 공간적 거리는 한국으로 설정한 후 ‘음주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국내의 법정형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따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합니다. 이러한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하였다. 먼 시간적 거리는 2006년으로 설정하고 ‘위 사건이 발생한 2006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2010년 4월 15일)되기 이전으로 형법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가까운 시간적 거리는 2021년으로 설정하고 ‘2021년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2조에

7) 위험인식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거론되는 통제 가능성(controllability) 요인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의 명료성, 경제성,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러한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발생확률적 거리 문항은 동일한 사기범죄 시나리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양형기준 문항(‘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피싱 사기 가담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사기방조죄는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을 사용하였고, 대신 응답자의 발생확률적 거리(e.g. ‘나 자신’, ‘타인’)에 차이를 두었다.

응답자의 답변은 모두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수집했고 1점에서 5점(1: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5: 매우 그렇다)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데이터의 전처리, 기초통계 분석, 그리고 통계분석은 분석프로그램 SPSS(ver. 26.0)을 사용하였다.

결 과

심리적 거리에 따른 범죄관련 의사결정의 차이

범죄현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수준이 범죄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공간적 거리), 미성년자 간음(시간적 거리), 보이스피싱 사기(발생확률적 거리) 세 가지 범죄유형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귀인효과, 비난의 정도, 필요한 정보의 양, 혐의 판단 가능성, 양형 기준 증가 필요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각 범죄유

형별 분석결과에서 가설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만을 서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공간적 거리의 심리적 거리 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 공간적 거리 조건에서 가까운 공간적 거리에 비해 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양과 혐의판단에 대한 가능성이 모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 도식적이고 비맥락적인 해석이 이루어짐이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인 응보적 판단은 가까운 심리적 거리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연구가설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적 거리 시나리오와 발생확률적 거리에서는 모든 심리적 거리 수준에 따른 범죄관련 의사결정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평균값만을 살펴보았을 때 직관과 부합하는 결과는 살펴볼

수 있었는데, 시간적 거리 시나리오에서 먼 심리적 거리의 조건일 때 혐의입증을 위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공된 정보에 따라 혐의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평균값이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증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가까운 심리적 거리일 때의 평균치가 더 높았다. 시간적 거리에 따른 도덕 판단을 다룬 Gong과 Medin (2012)의 연구 또한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시간적 거리 시나리오는 다른 심리적 거리의 유형에 비해 해석수준 조건을 점화하는데 있어 충분한 효과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연구자료로 사용한 미성년자 간음 범죄시나리오 자체가 갖는 내용의 효과로 인해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3. 음주운전 사망사고(공간적 거리 시나리오) 심리적 거리의 차이

구분		N	M	t	CI	
기질귀인	멈	116	3.35	-0.25	-0.33	0.25
	가까움	105				
상황귀인	멈	116	3.05	-0.11	-0.29	0.26
	가까움	105				
비난의 정도	멈	116	4.61	-0.42	-0.20	0.13
	가까움	105				
정보의 양	멈	116	4.13	1.96†	-0.00	0.51
	가까움	105				
혐의 판단 가능성	멈	116	4.21	2.08*	0.01	0.48
	가까움	105				
양형 기준의 증가	멈	116	3.68	-3.04**	-0.65	-0.13
	가까움	105				

** $p < .01$, * $p < .05$, † $p < .1$ (marginally significant)

마지막으로 발생확률적 거리의 심리적 거리 수준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범죄관련 의사결정의 유의미한 평균차이는 양형기준 증가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나타났다. 다만 양형기준 증가에 대한 응답치가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서 더 낮아, 직관과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직관에 부합하는 요소는 먼 발생확률적 거리에서 가까운 발생확률적 거리에 비해 혐의입증을 위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공된 정보에 따라 혐의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위협인식의 차이

분석결과 세 가지 유형의 심리적 거리 시나리오에서 공간적 거리 시나리오(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 심리적 거리와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만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시간적 거리와 발생확률적 거리에서의 심리적 거리와 성별 및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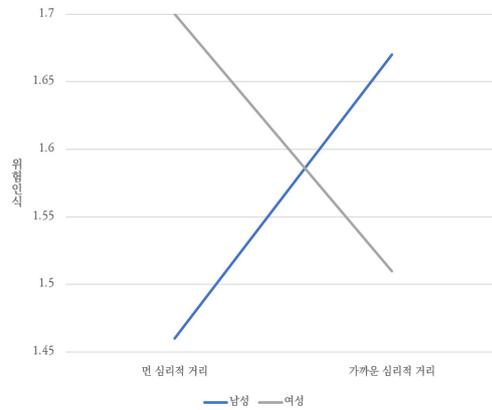


그림 1. 공간적 거리와 성별의 상호작용효과

심리적 거리에 따른 위협인식의 차이

범죄유형별 심리적 거리에 따라 위협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맨위트니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협인식(발생가능성×피해심각성), 발생가능성, 피해심각성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 심리적 거리에 따른 위협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가까운 심리적 거리인 경우 범죄에 대한 위협인식, 발생가능성, 피해심각성의 평균값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관과 부합하는 결과가 존재했다.

표 4. 성별과 공간적 거리 상호작용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SS	df	MS	F	p
위협인식	절편	458.59	1.00	458.59	955.09	0.00
	성별	0.01	1.00	0.01	0.01	0.90
	공간적 거리	0.06	1.00	0.06	0.12	0.73
	성별×공간적 거리	1.85	1.00	1.85	3.85	0.05†
	오차	104.19	217.00	0.48		
	전체	658.89	221.00			

†p<.1 (marginally significant)

표 5. 심리적 거리에 따른 위협인식의 차이

구분	문항	먼 심리적 거리	가까운 심리적 거리	p	Mann-Whitney test	
					U	Z
위협 인식	공간적 거리	1.52±0.72	1.64±0.67	0.18	5456.00	-1.35
	시간적 거리	1.75±0.74	1.79±0.74	0.34	5642.00	-0.95
	발생확률적 거리	1.47±0.81	1.57±0.80	0.18	5452.50	-1.35
발생 가능성	공간적 거리	3.32±1.24	3.50±1.20	0.30	5614.00	-1.03
	시간적 거리	1.71±0.93	1.78±0.89	0.34	5672.50	-0.96
	발생확률적 거리	3.78±1.29	3.87±1.29	0.59	5845.00	-0.54
피해 심각성	공간적 거리	1.91±1.05	1.931.±03	0.75	5950.00	-0.31
	시간적 거리	3.22±1.33	3.26±1.29	0.99	6086.50	-0.01
	발생확률적 거리	1.73±1.01	1.87±1.00	0.21	5538.50	-1.26

논 의

본 연구는 각 범죄유형별 심리적 거리 시나리오에 따라 귀인, 정보의 양, 혐의 판단 가능성과 같은 결정, 양형기준의 증가와 같은 범죄관련 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기질 귀인과 상황귀인에 대한 판단은 세 가지 심리적 거리 시나리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동아시아인이 근본귀인오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할 때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⁸⁾ 그러나 범죄관련 정보에 따라

개인의 범죄관련 의사결정에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었다. 예컨대, 심리적으로 먼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시된 범죄사건에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에 비해 보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났다. 심리적 거리의 효과는 공간적 거리 시나리오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먼 심리적 거리 조건에서 제공된 정보의 양이 충분하며, 혐의판단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까운 심리적 거리에 비해 높았다. 마찬가지로 양형기준을 높여야한다는 경향 또한 가까운 심리적 거리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 제공된 범죄정보에 따라 범죄관련 의사결정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공간적거리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시간적 거리와 발생확률적 거리에서의 심리적 거리라는 조작효과 비해 범죄유형 자체(i.e. 미성년자 간음, 보이스

8) 살인 사건 보도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신문기사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국 기자의 대부분은 살인범의 개인적인 특성을, 중국 기자는 상황적 요인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is & Peng, 1994). 즉, 근본귀인오류가 본 연구대상자인 아시아인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상사기)가 귀인판단, 비난의 정도, 혐의판단 가능성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공간적 거리로 사용된 조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서 시간적 거리와 발생확률적 거리에 사용된 시나리오에 비하여 내용 자체가 갖는 충격성과 그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의 조작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시간적 거리와 발생확률적 거리의 시나리오는 피해자의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건이며, 범죄로 인한 결과(i.e. 성폭력피해, 재산피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해석수준이론을 제시한 Trope와 Liberman(2010) 또한 일부 심리적 거리의 차원은 다른 차원보다 더 기본적인데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공간적 거리가 다른 심리적 거리에 비하여 보다 기본적이며 효과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고 시간적 거리는 공간적 거리에 대한 유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검토되었다(Boroditsky, 2000, 2001; Boroditsky & Ramscar, 2002).⁹⁾ 이러한 점에서, 공간적 거리는 다른 심리적 거리에 비하여 더 명확하고 덜 모호하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심리적 거리에 비하여 더 기본적인 거리로 여겨진다(Trope & Liberman,

9) Boroditsky(2000)에 따르면, 시간에 대한 문항에 대답하기 전에 공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참가자의 응답에 영향을 미쳤지만 공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참가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고했다(Boroditsky, 2000). Casasanto와 Boroditsky(2008)의 연구에서는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선에 대한 판단 시 노출 시간에 대해 판단은 선의 길이(i.e. 공간적 거리)에 영향을 받는 반면 판단된 길이는 노출된 시간(i.e. 시간적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했다.

2010).¹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결과에서 공간적 거리의 효과가 더 명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구방법상 한계로 인한 가능성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는 시나리오별 강조하고자 하는 심리적 거리의 조작조건에 대해 별도로 강조(e.g. 스마트폰 화면 내에 해당 조건을 볼드체 또는 밑줄 표시하는 등)하지 못한 채로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응답자로 하여금 각 조건이 두드러지게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심리적 거리의 조건별 대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간적 거리에서 사용된 조건(‘한국’, 그리고 ‘미국’의

10)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차원에서 본다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명확히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개인에게 있어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유영하는 1차원적 차원으로 통제가능성이 낮게 인식되는 반면, 공간적 거리는 3차원적이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차원으로서 원하는 공간에 더 가까이 또는 멀리 이동하는 등 거리에 대한 통제가능성이 높게 인식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심리적 거리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제어가 가능하고, 발생확률적 거리 또한 개인에게 발생할 사건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만 제어가 가능하다(Trope & Liberman, 2010). 덧붙여 Trope와 Liberman(2010)은 사회적거리는 멀어질수록 긍정성이 감소(i.e. 내부집단에 비해 외부집단이 부정적으로 평가됨)하지만 시간적 거리는 멀어질수록 긍정성이 증가(i.e. 일반적으로 먼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한다는 점에서 해당 심리적 거리들은 단순한 실험적조건을 넘어 차원의 문제, 개인의 통제에 대한 인식정도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비)이 시간적 거리(‘2006년’, 그리고 ‘2021년’의 대비)나 발생확률적 거리(‘나 자신’, 그리고 ‘A씨’의 대비)에 비해 응답자들에게 있어 보다 직접적인 비교효과를 가지는 조건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존재한다.¹¹⁾ 마지막으로 또다른 가능성은 순서효과(order effects)에 의한 것이다(Strack, 1992). 설문조사 수행 시 제시한 첫 번째 자료가 공간적거리 시나리오이기에 공간적거리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각 시나리오에 사용된 범죄유형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에,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위험인식은 범죄현상에 대한 성별과 심리적 거리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특히 폭력범죄와 사기범죄에 비하여 성폭력범죄에 있어 성별의 효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험인식에 있어 각 심리적 거리와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상호작용효과가 공간적 거리 시나리오에서만 유일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적 거리와 발생확률적 거리 시나리오에서 성별과 심리적 거리의 효과보다 시나리오 내용 자체가 갖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시나리오에서 조작된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심리적 거리에 비하여 공간적 거리가 갖는 영향력이 큰 것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간적 거리에서의 심리적 거리 수준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위험인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나리오 사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내용으로 구성됨을 고려한다면, 가까운 심리적 거리인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해당 범죄의 발생가능성과 피해심각성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범죄두려움 및 위험인식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상인 ‘남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게 보고되는 여성의 높은 범죄두려움’(Ferraro, 1995; Fisher & May, 2009; Franklin & Franklin, 2009; LaGrange & Ferraro, 1989; Skogan & Maxfield, 1981; Snedker, 2010; Warr, 1984)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범죄율과 여성의 범죄두려움 사이의 불일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해왔던 이론들에 따르면 여성 스스로 느끼는 전반적인 취약성에 의한 것이거나(Goodey, 1994),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이 다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이, 확대될 수 있다거나(Warr, 1984),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일상에 만연한 폭력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Sacco, 1990)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여성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형성의 과정이 근본적으로는 남성의 두려움 형성 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성별’이라는 요소만으로는 범죄두려움 형성과정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Madriz, 1997). 이러한 이유로 범죄두려

11) 실제로 각 심리적 거리의 효과를 암묵적 연합 검사(내재적 연관 검사, IAT; Implicit Association Test)의 반응속도로 살펴본 Bar-Anan 등(2006)에 따르면, 공간적 거리는 시간적 거리, 발생확률적 거리와 비교해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답자에게 공간적 거리의 시나리오의 조건이 시간적, 그리고 발생확률적 거리에 비해 더욱 큰 조작효과를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움에서의 성별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선 성별 자체가 아닌 성별이 형성하는 범죄위험에 대한 인식(Cobbina et al., 2008)과 위험에 대한 평가가 중점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다. 예컨대 Snedker(2011)에 따르면 여성인 경우에도 이웃과 그 환경, 사람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마찬가지로, 위험 평가, 지역 지식, 이웃에 대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제공받은 여성일수록 범죄두려움이 감소했다. 또한 범죄두려움에서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에서 강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는 압도적이지 않았다. 저자에 따르면,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성별로 인한 두려움보다는 ‘강간이라는 범죄’에 대한 사회화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와 같이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이 다른 유형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성별이라는 요소 자체만으로는 범죄두려움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즉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높은 인식(Ferraro, 1995)을 설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성별의 효과가 특정 심리적 거리에서 역전된 결과는 위험인식이 주관적 인식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즉, 범죄현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범죄라는 위험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범죄두려움(본 연구에서는 위험인식으로 측정)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지된 가능성과 그 심각성으로 측정된다는 Ferraro(1995)의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특정 유형의 범죄를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여성이 모든 범죄유형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기존의 논의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인식은 개인적인 경험, 문화적 영향, 사회적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범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거리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폭행이나 강도와 같은 일부 유형의 범죄는 통계적으로 남성에게 더 자주 발생하고¹²⁾ 이러한 범죄를 직접 경험했거나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두려움과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 즉 특정 유형의 범죄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더 위험을 크게 지각할 수 있고, 이는 범죄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거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거리 수준에 따른 위험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유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 심리적 거리의 효과가 주로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내용의 맥락에서 명확히 나타나고(Wang et al., 2021), 양극화될 수 있는 주제이거나 응답자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주제의 내용에서는 심리적 거리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이론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선행연구 분야는 주로 소비자 심리학으로, 동일한 정보나 상품임에도 심리적 거리(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발생 확률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는 논의를 바탕

12) 2021년 기준 남성의 강력범죄(폭력) 피해건수는 91,334건으로 여성 강력범죄(폭력) 피해자 60,972건에 비해 높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남성의 강력범죄(폭력) 피해건수는 여성의 피해 건수보다 높다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html?stat_seq=18&menuId=2003102&rootId=2003000, 2023. 6. 19. 최종접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³⁾ 따라서 다양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서 심리적 거리 조작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본 연구의 응답자 특성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위협인식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저연령층은 고연령층에 비해 다양한 유형의 위협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Chauvin, 2018; Hanoch et al., 2018). 즉, 위협과 관련된 정보가 해석되고 평가되는 방식에 있어 성별과 연령 또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 총 221명 중 남성이 156명으로 여성 65명에 비해 2배이상 많고, 4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 중 77.9%를 차지하고 있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다소 편향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적 거리 수준에 따른 위협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차이가 연구표본의 한계에 의한 것인지, 순수하게 성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기 위한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자료상와 연구설계상 한계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온라인 조사상 수집된 표본의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이다. 생활안전조사에서 사용하는 표본조사의 방법인 층화 추출 및 계

통 추출의 방식은 조사대상의 일부분(e.g. 500명 등)을 대상으로 하여도 조사 대상 전체(e.g. 우리나라 성인 전체)와 조사결과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등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는 장점을 갖는다. 반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온라인 조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패널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실제 응답에 성실하게 참여한 대상자의 응답만을 포함시켜 분석하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대상의 조사방식에 비해 대표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이운석 외, 2008). 즉, 엄격한 확률표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아가 스마트폰 온라인 조사는 대체로 온라인 기기에 익숙하고 인터넷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응답자들(대도시 거주층, 저연령층, 고학력층 등)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접촉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 다른 자료상의 한계로는 대상자의 주택유형(e.g.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 주거형태(e.g. 자기 집, 전세, 월세 등), 지역 사회의 특성(e.g. 이웃관계, 이웃참여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경찰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범죄두려움(내지 위협인식)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유형과 지역사회내에 대한 개인적 인식의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 길이의 한계상 해당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였다.

연구설계상 한계로는 공간, 시간, 발생확률적 시나리오가 동일한 범죄유형을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개별적인 범죄유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순수하게 심리적 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닌 시나리오 영향(i.e. 범죄유형의 효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13) 마찬가지로 심리적 거리가 주로 활용되는 주제는 기후변화(e.g.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기후변화가 갖는 위협성의 시나리오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범죄시나리오에 비해 민감한 내용을 덜 포함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거리 조작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시나리오를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동일 내용에 세 번 노출되어 불가피하게 사용된 연구설계이지만, 본 연구 결과가 순수한 심리적 거리 조건의 영향이 아닌 시나리오의 내용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추후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시나리오를 사용하되 심리적 거리는 다르게 조작(e.g. 예컨대, 공간적 거리 시나리오였던 음주운전 사망 사건 시나리오에 시간적 거리에서 사용한 조건을 사용하는 등) 하는 반복검증이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심리적 거리가 갖는 순수한 조작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방법과 자료상의 한계를 보완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률 추출방식으로 추출하여 응답자를 추출하고, 설문응답을 온라인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이희준, 2020). 또한, 온라인패널의 편향을 보정하기 위해 성향조정가중법(propensity adjustment weighting)¹⁴⁾과 같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대표성 있는 준거조사와 온라인조사를 함께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범죄유형 외에 증가하고 있는 기타 유형의 범죄도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범죄 유형 중 불법촬영

유포범죄를 다루었으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에는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영상물을 촬영, 제공하는 형태 등과 같은 형태 또한 적지 않다(최이문, 안재경, 2020). 불법영상촬영 행위보다 한 단계 진화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이 개인의 위험인식을 측정하는 자료는 수집시기 전후로 발생한 큰 사회적 사건, 범죄현상들에 영향을 받는다. 즉, 연구에 사용된 순수한 실험적 조건에 의하기 보다 설문이 수행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한 사회적인 문제들,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의 담론들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여러 외생변인을 조절할 수 있는 연구설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범죄현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수준이 범죄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고 개인의 심리적인 거리감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실증적으로 측정했다는 장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료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심리적거리와 그에 따른 의사결정의 차이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범위상 심리적 거리가 범죄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인을 모두 같은 차원의 결과로 상정하고 분석한 결과만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 연구 측정변인들은 상호작용적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하나의 모델로 통합해 분석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4) 성향조정가중법이란 Rosenbaum와 Rubin(1983, 1984)에 의해 처음 제안된 것으로 관측연구에서 집단 간에 존재하는 성향적 차이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집단 간 공정한 비교를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해선 확률적 표본추출에 의한 충분한 규모의 준거조사(reference survey)가 요구된다(허명희, 조성겸, 2010).

참고문헌

- 박성훈, 강태경 (2016). 시나리오 접근을 통한 일반인과 법조인의 양형 인식 비교 - 실험 선고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학*, 10(3), 65-100.
- 박재진 (2012). 기본적 귀인오류현상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의 조절 효과. *한국언론학보*, 56(4), 293-310.
- 안재경 (2023). 위험인식으로서의 범죄두려움. 박사학위논문. 경찰대학
- 안재경, 한상훈, 최이문 (202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한국판 자유의지와 결정론 척도(FAD-Plus)의 타당화 -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과 귀인편향의 관계 -. *한국심리학회지: 법*, 12(1), 35-51.
- 이가영, 인다희, 김범준 (2018). 심리적 거리와 처벌 판단: 시간적 거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4), 25-40.
- 이희준 (2020). KIPA 조사포럼, 34. 한국행정연구원.
- 정혜승, 정은경, 손영우 (2011). 확률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이 도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27-40.
- 허명희, 조성겸 (2010). 자원자 패널에 의한 인터넷 조사의 성향조정 가중화. *조사연구*, 11(2), 1-28.
- 최이문, 안재경 (2020).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4(3), 185-210.
- Agerström, J., & Björklund, F. (2009). Moral concerns are greater for temporally distant events and are moderated by value strength. *Social Cognition*, 27, 261-282.
- Banks, M. (2005). Spaces of (in)security: Media and fear of crime in a local context. *Crime, Media, Culture*, 1(2), 169-187. <https://doi.org/10.1177/1741659005054020>
- Bar-Anan, Y., Liberman, N., & Trope, Y.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ance and construal level: Evidence from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5(4), 609-622. doi:10.1037/0096-3445.135.4.609
- Berthet, V. (2022). The impact of cognitive biases on professionals' decision-making: A review of four occupational areas. *Frontiers in Psychology*, 12, 802439-802439. <https://doi.org/10.3389/fpsyg.2021.802439>
- Boroditsky, L. (2000). Metaphoric structuring: Understanding time through spatial metaphors. *Cognition*, 75(1), 1-28. [https://doi.org/10.1016/S0010-0277\(99\)00073-6](https://doi.org/10.1016/S0010-0277(99)00073-6)
- Boroditsky, L. (2001). Does language shape thought?: Mandarin and english speakers' conceptions of time. *Cognitive Psychology*, 43(1), 1-22. <https://doi.org/10.1006/cogp.2001.0748>
- Boroditsky, L., & Ramscar, M. (2002). The roles of body and mind in abstract thought. *Psychological Science*, 13(2), 185-189. <https://doi.org/10.1111/1467-9280.00434>
- Callanan, V. J. (2012). Media consumption, perceptions of crime risk and fear of crime: Examining Race/Ethnic differences. *Sociological Perspectives*, 55(1), 93-115. <https://doi.org/10.1525/sop.2012.55.1.93>
- Casasanto, D., & Boroditsky, L. (2008). Time in the mind: Using space to think about time.

- Cognition*, 106(2), 579-593.
<https://doi.org/10.1016/j.cognition.2007.03.004>
- Chadee, D. (2015). *Psychology of fear, crime, and the media: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N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doi:10.4324/9781315779812.
- Chadee, D., & Ditton, J. (2005). Fear of crime and the media: Assessing the lack of relationship. *Crime, Media, Culture*, 1(3), 322-332. <https://doi.org/10.1177/1741659005057644>
- Chandran S., & Menon, G. (2004). When a day means more than a year: Effects of temporal framing on judgments of health risk.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1, 375-389.
- Chauvin, B. (201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Judgment of Risk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ultural Orientation, and Level of Expertise. In Raue, M., Lerner, E., Streicher, B.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Risk and Risk Analysis*. Springer, Cham.
https://doi.org/10.1007/978-3-319-92478-6_2
- Choi, Y. (2013). *Jurors' Subjective Certainty and Standards of Proof: The Role of Emotion and Severity of Charge in Subjective Probability Judgment*.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Graduate College at the University of Nebraska.
- Farrall, S. D., Jackson, J., & Gray, E. (2009). *Social Order and the Fear of Crime in Contemporary T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Fisher, B. S., & May, D. (2009). College student's crime-related fears on campus: Are fear provoking cues gendered?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5, 300-321.
- Franklin, C. A., & Franklin, T. W. (2009). Predicting fear of crime: Considering differences across gender. *Feminist Criminology*, 4, 83-106.
- Fujita, K., Trope, Y., Liberman, N., & Levin-Sagi, M. (2006). Construal levels and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3), 351-367.
- Gabriel, U., & Greve, W. (2003). The psychology of fear of crim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perspectives.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3(3), 600-614.
<https://doi.org/10.1093/bjc/43.3.600>
- Gamliel, E., Kreiner, H., & McElroy, T. (2017).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 on unethical behavior.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7(2), 211-222.
- Gerbner, G., Jackson-Beeck, M., Jeffries-Fox, S., & Signorielli, N. (1978). Cultural indicators: violence profile no. 9.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76-207.
- Gerbner, G., Gross, L., Signorielli, N., & Morgan, M. (1980). Television Violence, Victimization, and Power.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3(5), 705-716.
doi:<https://doi.org/10.1177/000276428002300506>
- Gong, H., & Medin, D. L. (2012). Construal levels and moral judgment: Some complication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7(5), 628-638.
<https://doi.org/10.1017/S1930297500006343>
- Gunter B., & Wakshlag J. (1986). Television viewing and perceptions of crime among London residents. In P. Drummond and R.

- Paterson (Eds.). *Television and its Audience*,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191-209
- Hale, C. (1996). Fear of Crim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4(2), 79-150.
doi:10.1177/026975809600400201
- Hanoch, Y., Rolison, J. J., & Freund, A. M. (2018). Does Medical Risk Perception and Risk Taking Change with Age?. *Risk Analysis*, 38, 917-928. <https://doi.org/10.1111/risa.12692>
- Houwelingen, G., Dijke, M., Hiel, A., & Cremer, D. (2020). Cognitive foundations of impartial punitive decision making in organizations: Attribution and abstrac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42(6), 726-740.
doi:10.1002/job.2480
- Innes, M. (2014). *Signal Crimes: Social Reactions to Crime, Disorder and Control*.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son, J. (2006). Introducing fear of crime to risk research. *Risk analysis*, 26(1), 253-264.
doi:10.1111/j.1539-6924.2006.00715.x
- Jackson, J. (2011). Revisiting Risk Sensitivity in the Fear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8(4), 513-537.
doi:10.1177/0022427810395146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1-24.
doi:10.1016/0022-1031(67)90034-0.
- Killias, M. (1990). Vulnerability: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a key variable in the genesis of fear of crime. *Violence and Victims*, 5, 97-108.
- LaGrange, R. L., & Ferraro, K. F. (1989). Assessing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risk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27, 697-719
- Liska, A. E., & Baccaglioni, W. (1990). Feeling safe by comparison: Crime in the newspapers. *Social Problems*, 37(3), 360-374.
- Mårtensson, E. (2017). Construal level theory and moral judgments: How thinking abstractly modifies morality. *Journal of European Psychology Students*, 8(1), 30-40.
<https://doi.org/10.5334/jeps.413>
- McCrea, S. M., Wieber, F., & Myers, A. L. (2012). Construal level mind-sets moderate self- and social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1), 51-68.
<https://doi.org/10.1037/a0026108>
- Morris, M.,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49-971.
10.1037//0022-3514.67.6.949.
- Nussbaum, S., Trope, Y., & Liberman, N. (2003). Creeping dispositionism: The temporal dynamics of behavior pre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85-497.
- Rosenbaum, P., & D. B. Rubin.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41-55.
- Rosenbaum, P., & D. B. Rubin. (1984). Reducing Bias in Observational Studies Using Subclassification on the Propensity Scor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9, 516-524.
- Skogan, W. G., & Maxfield, M. G. (1981). *Coping*

- with crime: individual and neighborhood reaction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2), 311-322.
doi:<https://doi.org/10.1111/j.0272-4332.2004.00433.x>
- Snedker, K. A. (2010). Neighborhood conditions and fear of crime: A reconsideration of sex differences. *Crime & Delinquency*.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10.1177/0011128710392003
- Strack, F. (1992). "Order Effects" in Survey Research: Activation and Information Functions of Preceding Questions. In: Schwarz, N., Sudman, S. (eds) *Context Effects in Soci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Springer, New York, NY.
https://doi.org/10.1007/978-1-4612-2848-6_3
- Todorov, A., Goren, A., & Trope, Y. (2007). Probability as a psychological distance: Construal and pre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3), 473-482.
<https://doi.org/10.1016/j.jesp.2006.04.002>
- Trope, Y., Liberman, N.,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83-95.
doi:10.1016/S1057-7408(07)70013-X.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2), 440-463.
doi:10.1037/a0018963
- Vallacher, R. R., & Wegner, D. M. (1989). Levels of personal agency: individual variation in action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4), 660-671.
- Wakslak, C., & Trope, Y. (2009).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 on Subjective Probability Estimates. *Psychological Science*, 20(1), 52-58.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8.02250.x>
- Wang, S., Hurlstone, M. J., Leviston, Z., Walker, I., & Lawrence, C. (2021). Construal-level theory and psychological distancing: Implications for grand environmental challenges. *One Earth*, 4(4), 482-486.
doi:10.1016/j.oneear.2021.03.009
- Warr, M. (1984). Fear of victimization: Why are women and elderly more afraid?, *Science Quarterly*, 681-702.
- Warr, M. (1987). Fear of victimization and sensitivity to risk.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1), 29-46.

1 차원고접수 : 2023. 05. 23.

심사통과접수 : 2023. 07. 17.

최종원고접수 : 2023. 07. 24.

How psychological distance affects decision-making regarding criminal events

Jaekyung Ahn

Hannam University

Yimoon Choi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distance, based on the concept proposed by Trope and Liberman (2010), on crime-related decision-making and risk perception. The research findings yield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scenarios involving spatial distance. In conditions of psychologically distant condition, compared to closer spatial distance, there was a higher sufficiency of information for judgment, the ability to make judgments based on the provided information, and a tendency to strengthen sentencing criteria. Thus, this study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individuals' decision-making could vary depending on how crime-related information is presented in scenarios involving spatial distance. Furthermore, psychologically closer spatial information constituted a higher level of risk perception, whereas psychologically distant spatial information constituted a lower level of risk perception. Specifically, it was found that men, compared to women, perceived a higher likelihood of crime occurrence and greater seriousness to the resulting harm. This finding contradicts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reported women to be more fearful of crime victimization compared to men. Thes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the psychological proximity individuals feel towards crime events may have a greater influence than demographic information such as gender, which has frequently been considered a significant predictor in traditional research on fear of crime and risk percept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level of individuals' psychological distance towards crime phenomena has the potential to more accurately measure risk perception regarding crime events.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psychological proximity when assessing individuals' perception of risk associated with crime.

Key words : Psychological distance, Construal Level Theory, survey on the state of public safety, risk perception, Decision making

[부록] 심리적 거리 사용 시나리오

	심리적 거리	민 심리적 거리	가까운 심리적 거리	
공간적 거리	<p>[범죄사실]</p> <p>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피고인(남, 35세)은 밤 23:00시경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3% 취한 상태로 전방을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여, 60세)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함.</p> <p>3개월 후 피해자는 어둠사리 깨어났지만, 뇌출혈과 머리 함몰이 심해 장애를 얻음</p>	<p>[범죄사실]</p> <p>충남 예산군 빛포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피고인(남, 35세)은 밤 23:00시경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3% 취한 상태로 전방을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여, 60세)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함.</p> <p>3개월 후 피해자는 어둠사리 깨어났지만, 뇌출혈과 머리 함몰이 심해 장애를 얻음</p>	<p>[기본적인 정상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 유족들은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배상 가능 ■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가족은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음 ■ 피해자는 주부로서 가족은 남편과 3명의 결혼한 자녀가 있음 ■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음 	<p>[기본적인 정상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서 유족들은 모든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배상 가능 ■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가족은 아내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음 ■ 피해자는 주부로서 가족은 남편과 3명의 결혼한 자녀가 있음 ■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있음
시간적 거리	<p>[범죄사실]</p> <p>해당 사건은 2006년 7월 17일 밤 12시 30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고인(남, 25세/미혼)은 미용사로 근무, 인턴 직원인 피해자(여, 17세)를 알게 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가 자취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소 호감이 있었다는 뜻을 표현, 가벼운 키스 등 신체 접촉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려는 마음을 가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 및 강간</p>	<p>[범죄사실]</p> <p>해당 사건은 2021년 7월 17일 밤 12시 30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피고인(남, 25세/미혼)은 미용사로 근무, 인턴 직원인 피해자(여, 17세)를 알게 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가 자취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소 호감이 있었다는 뜻을 표현, 가벼운 키스 등 신체 접촉함.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있는 모습을 보고, 간음하려는 마음을 가짐.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 및 강간</p>	<p>[기본적인 정상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 있음 ■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 ■ 피해자는 고등학교 학생이나 졸업 후 미용사가 되기 위해 저녁 시간 미용실 인턴 중 	<p>[기본적인 정상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 있음 ■ 이외에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음 ■ 피해자는 고등학교 학생이나 졸업 후 미용사가 되기 위해 저녁 시간 미용실 인턴 중
발생확률적 거리	<p>[범죄사실]</p> <p>A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은 평소 자주 교류하는 은행직원 B씨를 사칭. 계좌문제가 있으니 통장번호와 비밀번호 및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요구. 이후 현금서비스 7,200,000원과 장기대출로 29,900,000원이 대출됨. 보이스피싱들은 A씨에게 총 3천7백만원의 사기를 치고 잠적</p>	<p>[범죄사실]</p> <p>나(당신)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옵니다. 보이스피싱은 평소 자주 교류하는 은행직원 B씨를 사칭. 계좌문제가 있으니 통장번호와 비밀번호 및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요구. 이후 현금서비스 7,200,000원과 장기대출로 29,900,000원이 대출됨. 보이스피싱들은 A씨에게 총 3천7백만원의 사기를 치고 잠적</p>	<p>[기본적인 정상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의 총 책임자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음 ■ 검거된 보이스피싱 공범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 다른 한 명은 23세 대학생 ■ 공범들은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 	<p>[기본적인 정상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의 총 책임자는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음 ■ 검거된 보이스피싱 공범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 다른 한 명은 23세 대학생 ■ 공범들은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다고 주장